

KIA 나성범 “우리는 강해졌다…올해는 다르다”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주장 나성범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2026시즌 명예 회복을 다짐했다.

2024시즌 ‘우승 주장’인 나성범은 지난 시즌에는 팀이 8위로 추락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시즌 중반 다시 또 부상이 찾아오면서 개인적으로도 웃지 못한 시즌이었다.

선수단 대표로 나서 극과 극의 시즌을 보낸 나성범은 올 시즌 다시 KIA 주장을 맡았다. 지난해 아쉬움을 뒤로한 나성범은 기대감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KIA답지 못한 플레이와 성적을 냈다”며 팀이 약해졌다고 하위권으로 보는 팬들도 있고, 그런 시선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다. 올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성범의 기대감의 배경에는 준비와 경쟁 그리고 새 전력이었다.

나성범은 “선수들이 잘 준비했다. 개인적으로도 계획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시합을 해봐야 준비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게 잘 되고 있다”며 “필라테스나 내가 힘들어했던 부분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웨이트 위주였다면 올해는 다른 것을 병행하고 있다. 필라테스, 유연성,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부상·부진 딛고 새 얼굴과 경쟁하며 전력 강화…개막 준비 완료
지난 시즌 아쉬움 털고 후배들과 호흡 맞추며 팀 전력 끌어올려

다”고 설명했다.

KIA에서의 첫해였던 2022시즌 나성범은 144경기를 완주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지만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고전했다. 부상 없이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나성범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시즌을 보냈다.

“경쟁 구도 속 팀원들의 준비도 잘 이뤄지고 있다. 최형우의 FA 이적과 함께 이번 스프링캠프 야수 최고참이 된 나성범도 ‘경쟁자’의 입장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나성범은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고 있다. 계속 시합을 뛰어야 하니 그것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 어느새 팀의 고참급의 나이가 됐는데 세월이 빠르다”며 “젊은 애들 많지만 그 친구들에게 안 밀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작년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달린 모습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나뿐만 아니라 선수들 다 준비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성범이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KIA 야수진의 격차는 크다. 나성범은 그래서 더 KIA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나성범은 “우리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자리를 잡고 경험을 쌓다 보면 대단한 선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너무 기대되고 준비 잘한 만큼 좋은 성적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험을 통한 후배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그는 개인 나성범이 아니라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선수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나성범은 후배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다.

나성범은 “내가 신인 때만 해도 선배들이 어려웠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려웠다.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을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선배가 되면 언젠가 후배들이 다가와서 물어볼 것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후배들이 먼저 다가오기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다가간다. 올해 신인하고 18살 차이다(웃음). 옛그제 프로에 막 들어와서 야구했던 것 같은데 후배들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장난도 치고, 대화도 하면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역할과 후배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새 얼굴들도 2026시즌의 힘이 될 것이라는 게 나성범의 이야기다.

나성범은 “새 얼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신인부터 새로 이적한 선수, FA 선수도 있다. 새 외국인 선수도 있어서 색다른 야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대가 많이 된다”며 “(연습)경기 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그렇겠지만 빨리빨리 보완해 나가면서 시즌 개막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외야수를 찾아라... ‘성범스쿨’ 열공 모드

후배 김민규·박재현 집중 지도…강건 송구 비결 전수
외야 수비 노하우와 팀 경험 공유하며 시즌 준비 박차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에서 ‘성범스쿨’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KIA 이범호 감독의 2026시즌 구상에서 고민 지점은 우익수다. 최형우의 이적에 따라 지명타자 자리를 활용해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의 타력을 극대화하는 게 이범호 감독의 생각. 하지만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나설 때가 고민이다.

확실하게 우익수 역할을 해 줄 선수가 떠오르지 않으면서 KIA는 외야 퍼즐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성범이 사령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후배들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18년 차 차지가 나는 ‘무키’ 김민규와 2년 차 박재현이 ‘성범스쿨’의 주요 학생이다.

나성범은 외야 수비 훈련 시간이면 후배들을 붙잡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응원도 보내고 있다.

프로 첫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김민규에게는 배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다. 강건 외야수로 꼽히는 김민규는 “내야수가 받기 편한 송구를 해야 한

다”는 나성범의 조언에 깨달음을 얻었다.

단순히 공을 잡고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자를 잡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성범은 연세대 시절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할 정도로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다. 송구 훈련을 보던 전상현이 “투수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여전한 어깨를 자랑한다.

나성범은 “송구 의욕이 앞서서 이상하게 던지기도 한다. 나도 그랬다. 민규가 어깨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 나랑 같았다. 나도 신인 때 무턱대고 강하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던졌다. 공을 받는 내야수, 포수도 잡기 어렵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다”며 “어떻게 하면 잡는 사람이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강하게) 잘 던져도 정확하지 않으면 세이프가 될 수 있다. 경험 하다 보니까 잡는 사람이 편하게 잡는 게 조금 늦더라도 아웃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는 그는 팀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다.

나성범은 “내가 엄청 잘하는 외야수는 아니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송구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규, 재현이 등 어린 선수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준다”며 “배워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이가 들다 보니 계속 야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몇 년간 쫓아야 하는 후배들이니까 알려주는 게 내 역할인 것 같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하면서 안 부분들이다. 이렇게 내가 하면 차라대로 문화가 돼서 민규, 재현이, 승연이 등 어린 후배들이 고참이 됐을 때 또 알려줄 수 있고 그게 전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성범이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김민규(왼쪽)와 박재현에게 송구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WBC 8강 이상 목표” 대표팀 본격 담금질

16일부터 오키나와서 2차 캠프

2026 월드컵베이스볼래식(WBC)에서 최소 8강 진출을 목표로 잡은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구장을 안방으로 삼아 WBC 2차 캠프를 시작한다.

현재 KBO리그 각 소속팀에서 전지훈련을 소화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오키나와로 모인다.

이들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구장과 고친다 구장(한화 캠프지), 온나손 구장(삼성 캠프지)에서 훈련과 연습 경기를 치른다.

소집 훈련 첫날인 16일은 가데나, 17일과 18일은 고친다 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19일 하루 휴식한다.

이후에는 오키나와에 전지 훈련지를 꾸린 KBO리그 구단과 6차례 평가전으로 실전 감각을 회복한다.

먼저 20일에는 온나손에서 삼성, 21일에는 고친다에서 한화와 대결한 뒤 23일에는 고친다에서 한화, 24일에는 가데나에서 KIA와 만난다.

26일 삼성(온나손), 27일 KT(가데나)와 경기

를 치르면 대표팀의 오키나와 캠프 일정도 막을 내린다.

이후 대표팀은 28일 WBC 사무국이 공식으로 지정한 훈련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이동한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셰이 윌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데인 더닝(시애틀 매리너스),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고우석(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등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7명의 선수는 오사카 공식 훈련부터 함께한다.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는 한신 타이거즈(3월 2일), 오릭스 버펄로스(3일) 등 일본프로야구 구단과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연합뉴스

‘손흥민-메시 대전’ 불발되나

메시, 왼쪽 햄스트링 염좌 진단…개막전 출전 여부 미정

미국프로축구(MLS) 새 시즌 개막전에서 ‘메손대전’이 불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손흥민(LAFC)과 맞설 예정이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인터 마이애미 구단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메시가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메시의 훈련 복귀는 며칠간의 검사 결과와 회복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LS에서 2년 연속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고 팀을 지난 시즌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으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해온 메시는 지난 주말 에콰도르에서 열린 마이애미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러나 후반 12분쯤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체로 물러나 우려를 키웠다.

이번 부상으로 메시는 오는 22일 열리는 로스앤젤레스FC(LAFC)와 MLS 정규리그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LAFC에는 메시와 더불어 MLS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손흥민이 버티고 있다.

LAFC는 서부,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콘퍼런스에 속해 있어서 만나는 일정이 나오기 쉽지 않은 터라, 두 구단의 맞대결을 개막전으로 만든 건 다분히 흥행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게다가 메시와 손흥민이 MLS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메시가 다치면서 개막전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다.

마이애미는 메시의 부상에 프리시즌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에콰도르 구단 인데펜디엔테 델바예와의 프리시즌 최종전이 MLS 개막 이후인 27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